

# 영어 통사구문의 PRO속성

고 태 홍  
(사범대 영어교육과)

## 차 례

1. 서 론
2. PRO의 실체와 특성
3. PRO의 결속과 통제
4. PRO와 의미해석
5. 결 론

## 1. 서 론

영어에는 통사적 역할은 하지만 외현적 실체는 갖지 못하는 내현적 PRO가 있다. 이 PRO는 한 명제(proposition) 속의 논항들 사이의 의미역관계를 규명하는 의미역이론과 모든 문장은 주어물 가져야 한다는 확대투사원리(extended projection principle)에 따라, D-구조(D-structure)에서 설정되는 추상적 대명사 요소(abstract pronominal element)이다. 이러한 PRO는 그의 일부가 결속이론(binding theory)에 흡수되고 있지만 대부분 흔적(trace), 재귀대명사 혹은 상호대명사(reciprocal pronoun)와 같은 대응어(anaphor)나 대명사류(pronominal)와 같이 결속이론에 의해서 그 지시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통제이론(control theory)에 의해서 그 지시가 결정된다. 따라서 PRO는 논항(argument)위치에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어휘적 NP와 같으나 어휘적 NP와는 달리 지배될 수도 없으며 또한 격을 받을 수도

없다. 이러한 성격 때문에 PRO의 통사상 분포는 주로 시제가 없는 to-부정사 구문(to infinitive clause)의 주어 위치에 나타난다. 이러한 대명사 요소인 PRO는 부정사절의 주어로서 성, 수, 인칭의 통사적 자질을 가지고 있지만, 격을 할당받지 못하여 음성적으로 실현되지 않는다. 이처럼 부정사절의 공주어(empty subject) 위치에 나타나는 PRO는 상위절의 주어나 목적어를 선행사로 갖거나, 임의의 지시대상(arbitrary reference)을 선행사로 갖기도 한다. 이때 PRO 지시 관계를 결정하는 원리를 통제이론(control theory: Chomsky, 1981: 6)이라 하고 있다. 그러나 Haegeman(1991: 255)에 의하면 PRO가 나타나는 구문은 부정사 구문만이 아니라 동명사 구문, 전치사의 보충어 구문, 동명사 구문이 부가절로 나타나는 구문, 그리고 소절(small clause)등 이라 하고 있다:

1. a) It would be regrettable [<sub>CP</sub> [<sub>IP</sub> PRO to abandon art for law]].
- b) It would be wrong [<sub>CP</sub> [<sub>IP</sub> PRO to identify oneself with a movement]].
- c) John<sub>i</sub> remembers [<sub>CP</sub> PRO<sub>i</sub> abandoning the investigation].
- d) John<sub>i</sub> left [<sub>CP</sub> without PRO<sub>i</sub> saying goodbye].
- e) John<sub>i</sub> died [<sub>CP</sub> PRO<sub>i</sub> waiting for Miss Mary].
- f) John<sub>i</sub> arrived [<sub>sc</sub> PRO<sub>i</sub> angry].

이 논문에서는 비한정절(infinitival clause)에 나타나는 PRO에 대해서만 연구하게 된다. 위 1a)와 1b)에서 IP는 하나의 독립된 문장으로서 그 문장의 주어가 명시되지 않았지만 PRO가 이해된 주어(understood subject)로 존재한다는 사실은 1a)의 'to abandon art for law'을 의미상으로 보았을 때 '법을 위해 예술을 포기한 어떤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1b)의 IP에서 대용어 oneself의 선행사가 그 IP내에 존재해야만 문법적인 문장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주어가 있다고 가

정하는 것은 타당하다. 1c)에서 동명사 구문의 동사 abandon이 두 개의 논항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것의 주어에 해당하는 논항으로서 PRO가 필요한 것이고, 1d)의 동명사 구문은 전치사 without의 보충어로 나타났는데 그 보충어 구조 내에서 동사 say의 주어로서 PRO가 요구된다. 그리고 1e)의 동명사 구조는 상위절에 부가된 부가어 구조로서, 그 부가어절이 확대투사원리에 의해서 주어인 PRO가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1f)에서는 소절의 주어로서 PRO가 필요하다. 또한 이 PRO는 지배되지 않기 때문에 지배를 차단해주는 범주 CP가 PRO앞에 있다고 본다. 이것은 절을 보통절(ordinary clause: COMP NP-I-VP), 예외절(exceptional clause: NP-I-VP), 그리고 소절(smal clause: NP-XP)로 나누어 생각할 때 PRO가 나타나는 부정사 구문은 S(IP)신분이 아닌 S'(CP)신분인 비한정절임을 알 수 있다.

학교문법(school grammar)에서의 'to-부정사(infinitive)'는 동사이면서 명사적, 형용사적 그리고 부사적 역할을 하는 구(phrase)로 대개 인식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 부정사는 준동사의 일종으로서, 정형동사(finite verb)와는 달리, 주어의 인칭·수의 제약을 받지않고 목적어나 수식어를 수반하며 불완전 하면서도 여러 가지 시제나 태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명사와는 다른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하겠다. 이 동사적 성질을 '모든 명제에는 술어 동사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관련시켜 부정사 구문도 절(clause)의 개념으로 파악해보자는 데 이 논문이 목적이 있다. 따라서 'to-부정사' 구문을 단순한 구(phrase)가 아니라 절(clause)이란 개념으로 받아드리는 입장에서 PRO의 존재를 인정해야 하는 만큼 현장 영어지도에서 문장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이 논문은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 'PRO의 실체와 특성'에서 CP-보충어를 취하는 동사와 IP-보충어를 취하는 동사를 구별해야 되는 근거를 통사적인 면과 의미면에서 살펴보고 난 다음 PRO의 특성을 살펴본다. 제3장 'PRO의 결속과 통제'에서는 결속 이론과 통제

이론이 아무런 연관이 없는 독립된 이론임을 밝히고 구체적으로 통제이론의 실상을 알아 본다. 제4장 'PRO와 의미역'에서는 의미역이 주어지는 논항에 격이 배당된다고 볼 때 가시조건(visibility condition)이 의미역과 격배정관계를 연결시키는데 있어서의 문제점과 PRO의 격 배정을 저해하는 장벽(barrier)에 대해 연구하고 의무통제의 경우 주어통제 술어와 비주어통제 술어가 취하는 구문에 있어서 일관성이 무너지는 사실을 의미역 조건에 의해 해결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 결론에서는 제2장, 제3장 그리고 제4장에서 연구된 결과를 가지고 결론을 맺겠다.

## 2. PRO의 실체와 특성

본장에서는 PRO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 제시하고 있는 여러 경험적 혹은 이론적 증거 몇가지를 소개함으로써 통제 술어와 상승 술어를 구별하고 PRO의 특성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비한정(infinite) 보통절(ordinary clause)을 보충어(complement)로 취하는 동사와 비한정 예외절(exceptional clause)을 보충어로 취하는 동사를 구별해야 하는 논거를 살펴 보자.

2. a) John persuaded Mary to resign.  
b) John believed Mary to be innocent.
3. a) John persuaded Mary [<sub>CP</sub> [<sub>IP</sub> PRO to resign]].  
b) John believed [<sub>IP</sub> Mary to be innocent].

위 2)의 두 문장은 3)과 전혀 다른 구조를 지니고 있다. 외현상 [persuade NP to VP]와 [believe NP to VP]는 같은 구조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3)에서 알 수 있는 것 처럼 'persuade NP [<sub>CP</sub> [<sub>IP</sub> PRO to VP]]'와 'believe [<sub>IP</sub> NP to VP]'로 구별된다. 이들 두 유형의 구조를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많은 통사적, 의미론적인 속성이 있다. Chomsky(1981: 100)

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들 두 구문은 동사의 부가어 (adjunct)의 위치와 관련하여 차이를 가진다.

4. a) John persuaded Mary *firmly* [<sub>CP</sub> PRO to resign].
- b) \*John believed [<sub>IP</sub> Mary *firmly* to be innocent].
- c) John believed *firmly* [<sub>IP</sub> Mary to be innocent].

위 4a)에서 persuaded의 부가어인 firmly는 persuaded의 논항인 Mary뒤에 위치할 수 있으나, 4b)에서 Mary는 believed의 논항이 아니기 때문에 believed의 부가어인 firmly는 Mary뒤에 위치할 수 없다. 4a)와 4c)에서 처럼 부가어인 firmly는 그것이 수식하는 V와 동일한 IP문장 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와 비슷한 논거를 Chomsky(1981: 99)는 강조의 재귀대명사 위치에서 찾고 있다. 재귀대명사는 자신이 포함되고 있는 IP안에서 절동료(clause mate)를 선행사로 취해야 한다.

5. a) John persuaded Mary *himself* [<sub>CP</sub> PRO to resign].
- b) \*John believed [<sub>IP</sub> Mary *himself* to be innocent].

5a)에서는 himself와 그 선행사 John이 같은 절 속의 성분이지만, 5b)에서는 John과 himself가 같은 절 속의 성분이 못된다는 사실에서 5b)가 비 문법적임을 판단할 수 있게 된다.

Persuade와 believe동사가 취하는 보충어 구조가 다르다는 논거를 Chomsky(1981: 146)의 though에 의해 도입되는 양보절의 전치(preposing)현상에서 찾을 수 있다.

6. a) Though I may persuade her [to resign], I can't  
    imagine I'll persuade her to leave town.
- b) *Persuade her* though I may to resign, I can't  
    imagine I'll persuade her to leave town.
7. a) Though I believe [her to be innocent], I can't prove  
    it.

- b) \**Believe her though I may to be innocent, I can't prove it.*

이러한 대조는 her가 6)에서는 persuade의 목적어이나 7)에서는 believe의 목적어가 아니라는 사실과 관련된다. Persuade-류 동사와 believe-류 동사 사이의 통사적 차이에 비추어 볼 때, 이 두 부류의 동사 사이에는 또한 중요한 의미론적인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된다. 따라서 위 2a)와 2b)의 비한정절인 두 부정사 구문을 포함한 절은 다음 8a)와 8b)처럼 한정절로 바뀌어 쓸 수 있다.

8. a) John persuaded *Mary* [<sub>CP</sub> that *she* should resign].  
 b) John believed [<sub>CP</sub> that *Mary* was innocent].

위 8a)에서 persuade는 분명히 세 개의 논항을 취하는 3항 서술어(three-place predicate)이다. 첫 논항은 주어인 John이며, 둘째 논항은 Mary이고, 셋째 논항은 'that she should resign'이다. 한편, 8b)의 believe는 두 개의 논항만을 취하는 2항 서술어(two-place predicate)이다. 그 첫째 논항은 주어인 John이며, 둘째 논항은 'that Mary was innocent'이다.

이처럼, 'John persuaded Mary [<sub>CP</sub> to resign]'에서 persuade에 후행하는 NP인 Mary는 두 가지 의미역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직접적으로 persuade의 목적어로서의 기능을 가지며, 간접적으로는 PRO를 통하여 후행하는 부정사의 주어로서의 기능을 가진다. 반면에, 'John believed (IP Mary to be innocent)'에서 believe에 후행하는 NP인 Mary는 하나의 의미역, 즉 후행하는 부정사의 주어로서의 기능만을 가진다.

다음은 지금까지의 내용을 토대로 PRO의 특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 보기로 한다. 통제 이론의 분석대상인 PRO의 특성은 대략 다음 여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PRO는 부정사절의 공주어(empty subject) 위치에 나타나며, 음성적으로 실현되지 않는다. 이는 부정사가 그 주어에게 격

을 할당하지 못하고, 또한 부정사의 주어가 상위절의 어떤 요소에 의해 지배되어 격을 받지 못함을 뜻한다. PRO가 지배받지 않는 위치에 오면, 자연스럽게 격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내현적 요소인 PRO와 격을 받아야하는 외현적 요소인 NP는 서로 상보적 분포관계에 있다(Chomsky, 1981: 74).

9. a) It is unclear [<sub>CP</sub> what<sub>i</sub> [<sub>IP</sub> PRO / \*John to do t<sub>i</sub>].
- b) It is unclear [<sub>CP</sub> who<sub>i</sub> [<sub>IP</sub> PRO / \*John to visit t<sub>i</sub>].
- c) It is unclear [<sub>CP</sub> who<sub>i</sub> [<sub>IP</sub> \*PRO / John will love t<sub>i</sub>].

위 9a)와 9b)에서 'to do'와 'to visit'는 비시제절임과 동시에 인칭, 수, 그리고 성에 영향을 받지 않는 [-T, -AGR]의 자질을 지니므로 주어를 지배하지 못한다. 따라서 John은 격을 할당받지 못하고 격여과에 걸려 비문법적인 문장이 된다. 그러나 PRO는 지배되지 않는 위치에 있으므로 문법적이다. 9c)에서 will에 들어 있는 AGR이 지배자이므로 John은 격지배를 충족시켜 문법적 이지만, PRO는 지배받지 않아야 하므로 비문법적이다. 이 사실은 어휘적 NP가 나타나는 자리에는 PRO가 나타나지 못함을 뜻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문장에서는 이러한 일반화도 어색해진다.

10. a) I want John to win.
- b) I want PRO to win.

위 10)은 어휘적 NP가 나타나는 자리에 PRO가 나타나도 적형임을 보여 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Lasnik & Uriagereka (1988: 51)는 상위절의 격 배당 요소인 동사의 성격에 따라 S'(CP)가 지배되어 격배정될 때 필수적으로 생략되는 경우, 생략되어서는 안되는 경우, 그리고 선택적인 경우로 구분하고 있다. believe-류 동사는 생략이 필수적이고, try-류 동사는 생략되어서는 안되고, 그리고 want-류 동사는 생략의 선택적임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 보다는 want-류 동사는 동사 다음에 외

현적(overt) 주어에 갖는 부정사 구문이 올 때는 'want-NP-[<sub>CP</sub> PRO to VP]'구조가 되고 내현적(covert) 주어에 갖는 부정사 구문이 올 때는 'want-[<sub>CP</sub> PRO to VP]구조를 취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편이 편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PRO는 선행사와 성, 수, 인칭의 통사정보를 공유한다. 따라서 내포문의 주어가 외현상 실현되지 않을 때, 부정사의 주어인 PRO가 임의적 통제(arbitrary control)되거나, 상위절의 NP와 의무적 통제(obligatory control)되어야 한다.

11. a) John<sub>i</sub> wanted [<sub>CP</sub> PRO<sub>i</sub> to find the house empty].
- b) John persuaded Bill<sub>i</sub> [<sub>CP</sub> PRO<sub>i</sub> to leave].
- c) It is time [<sub>CP</sub> PRO<sub>arb</sub> to go]

위 11a)의 PRO는 상위절의 주어인 John에 의해 통제되고, 11b)의 PRO는 상위절의 목적어인 Bill에 의해 통제되며, 11c)의 PRO는 선행사를 찾을 수 없어 임의적 지시(arbitrary reference)를 나타낸다. 바꾸어 말하여, 11c)의 경우 행위의 주체는 누구라도 좋다.

셋째, PRO는 지배되지 않는 위치에 만 나타난다. 왜냐하면, PRO는 음성내용을 갖지 않는 대명사적 조용어(pronominal anaphor)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PRO가 출현하는 부정사의 주어 자리에서 PRO와 혼적 't'는 상보적 분포(complementary distribution)관계를 이룬다.

12. a) Who<sub>i</sub> do you think [<sub>CP</sub> \*PR/<sub>t<sub>i</sub></sub> is honest].
- b) John<sub>i</sub> is certain [<sub>CP</sub> \*PRO/<sub>t<sub>i</sub></sub> to win].
- c) Who<sub>i</sub> do you love [\*PRO/<sub>t<sub>i</sub></sub>].

위 12a)에서 PRO와 혼적 't'는 [+T, +AGR]에 의해서 지배되는 시제문의 주어위치이고, 12b)에서 PRO와 혼적 't'는 상승술어(raising predicate)에 의해서 지배되는 부정사절의 주어위치이다. 반면에 12c)에서 PRO와 혼적 't'는 어휘핵 love에 의해서 지배되는 보충어위치 이다.



넷째, PRO의 통제요인들을 다루는 통제 이론은 LF층위에서 적용되므로 LF층위에서 PRO는 자신을 통제하는 요소와 같은 지표를 부여받게된다. 그러나 이것은  $\alpha$ -이동에 의해서 부여되는 지표와는 다르다.

13. a) It is unclear [<sub>CP</sub> who<sub>i</sub> [<sub>PRO</sub><sub>arb</sub> to visit t<sub>i</sub>]].
- b) John<sub>i</sub> asked Bill [<sub>CP</sub> who<sub>j</sub> [<sub>IP</sub> PRO to visit t<sub>j</sub>]].
- c) John told Bill<sub>i</sub> [<sub>CP</sub> who<sub>j</sub> [<sub>IP</sub> PRO to visit t<sub>j</sub>]].

다섯째, PRO와 PRO를 통제하는 선행사 사이에는 '어떤 구성성분도 단 한 번의 규칙 적용에 의해서 하나 이상의 한계 교점(bounding node)을 넘어 이동되거나 의미해석될 수 없다'는 하위인접조건(subjacency condition: Chomsky, 1981: 78)이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에서 한계교점은 NP나 IP 경우에 따라서는 CP가 될 수 있다.

14. a) They<sub>i</sub> thought [<sub>CP</sub> that [<sub>IP</sub> [<sub>NP</sub> [<sub>CP</sub> PRO<sub>i</sub> to feed each other]]] would be difficult]].
- b) John<sub>i</sub> thinks [<sub>CP</sub> that [<sub>IP</sub> [<sub>NP</sub> the decision [<sub>CP</sub> PRO<sub>i</sub> to feed himself]]] would be foolish]].

위 14a)와 14b)에서 PRO는 한계교점을 두 개 이상 넘어 멀리 떨어져 있는 선행사로부터 통제되고 있지만 문법적이다.

여섯째, 의무적 통제의 PRO는 분리된 선행사(split antecedent)를 가질 수 없으나, 임의적 통제의 PRO는 분리된 선행사를 가질 수 있다. 또 의무적 통제에서는 PRO가 성분통어되어야 하나, 임의적 통제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

15. a) \*John<sub>i</sub> promised Mary<sub>j</sub> [<sub>CP</sub> PRO<sub>i+j</sub> to leave together].
- b) John<sub>i</sub> told Bill<sub>j</sub> about a nice place [<sub>CP</sub> PRO<sub>i-j</sub> have lunch together].
- c) John<sub>i</sub> promised Mary [<sub>CP</sub> PRO<sub>i</sub> to come back].

- d) \*Mary was promised by John<sub>i</sub> [<sub>CP</sub> PRO<sub>i</sub> to come back].
- e) [<sub>CP</sub> PRO<sub>i</sub> to control yourself<sub>i</sub>] is very advisable for you<sub>i</sub>.

위 15a)에서 promise는 의무적 통제술어인데 분리된 선행사를 취하고 있어서 비문법적이다. 그러나 15b)에서 tell은 임의적 통제술어이어서 분리된 선행사를 취하고 있어도 적형인 문장이다. 15c)는 주절이 수동화되지 않은 능동형인데, 15d)는 주절이 수동화된 것으로서 PRO의 선행사 John이 PRO를 성분통어(c-command)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능동형일 때의 성분통어조건이 수동화되면 파괴되기 때문에 비문법적이 된다. 그러나 임의적 통제구문인 15e)에서는 통제자가 문장의 맨 끝에 나타나 성분통어조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적형인 문장이 되고 있다.

### 3. PRO의 결속과 통제

확대표준이론(EST)과 그후의 Chomsky(1981, 1984)는 변형을 'Move- $\alpha$ ' 하나로 줄이고 16)과 같이 D-structure에서 서술어가 있으면 주어가 있어야 된다는 서술어-주어 허용원리(predicate-subject licensing principle)에 따라 통사적 주어인 공범주 PRO를 설정하게 된다.

- 16. a) John tried [<sub>CP</sub> PRO to avoid the issue].
- b) John persuaded Mary [<sub>CP</sub> PRO to avoid the issue].

또 투사원리에 따라 이 PRO는 D-structure, S-structure, LF에 그대로 투사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한다. 즉 투사원리는 논리적 주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는 통사적 주어도 필요하다는 원리이다. 이때 PRO를 다른 공범주인 NP-t 와 WH-t와 구별하기 위해 지배되지않는다는 PRO-정리(PRO-theorem)를 정한다. 따라서

PRO는 지배되지 않으며 지배범주도 없다. 즉 그 지시적 관계를 결속이론(binding theory)으로 다룰 수 없고, 통제이론으로 다루게 된다. 그러나 지배되지 않는다는 개념만으로는 그 지시적 의존 관계를 설명할 수 없다. 이장에서는 왜 결속이론과 통제이론이 독립된 이론으로 존재해야 하나를 살펴보기로 한다.

결속(binding)이란 명사구간의 동일지시 관계를 다루기 위해 도입된 개념으로 결속은 일단 결속어와 피결속어가 있어야 한다. 이때 결속어가 되는 명사구(NP)가 피결속어가 되는 명사구(NP)를 결속하는 데는 두가지의 기본적 조건이 있다. 결속어와 피결속어가 동일지표(co-index)를 가질 것과, 결속어가 피결속어를 성분통어해야 하는 것이다. Chomsky(1981: 333, 1986a: 166)는 결속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리고 있다.

17.  $\alpha$  binds  $\beta$  if  $\alpha$  and  $\beta$  are coindexed and  $\alpha$  c-commands  $\beta$ , where coindexing includes either co-superscripting or co-subscripting

이것은 ' $\alpha$ 와  $\beta$ 가 동일지표되고,  $\alpha$ 가  $\beta$ 를 성분통어할 때,  $\alpha$ 가  $\beta$ 를 결속한다'는 뜻이다. 이 결속이 성립되는데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결속조건이 있는데 결속조건은 세 가지로 나누어 진다.

18. 결속조건: (A) 대용어(anaphor)는 그 지배범주(governing category)내에서 결속된다.  
 (B) 대명사류(pronominal)는 그 지배범주 내에서 결속되지 않는다.  
 (C) 지시적 표현(R-expression)은 결속되지 않는다.

여기에서 대용어란 himself, each other와 같이 홀로 서지못하고 반드시 선행사(antecedent)가 필요한 NP를 지칭하며, 대명사류란 he she, I, they 같은 종류의 NP를 가리키고, 지시적 표현이란 John, Mary 같은 NP와 wh-흔적(wh-trace)을 일컫는다. 지배범주는 Chomsky(1980)에서는 해당 NP(조용사, 또는 대명사

류, 또는 지시적 표현)를 포함하는 최소 NP나 S로 정의되었으나, Chomsky(1981: 212)는 ' $\alpha$ 의 지배범주  $\beta$ 는  $\alpha$  자신과  $\alpha$ 의 지배자 및  $\alpha$ 에 접근 가능한 주어(a subject accessible to  $\alpha$ )를 포함하는 최소 범주이다'라고 해서 지배자를 포함하도록 정의고 있다.

Chomsky(1981: 191)에 의하면 PRO는 자신의 절이나 NP안에 선행사를 절대로 갖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반 대명사와 동일하며 또한 PRO는 자신의 지시내용을 독자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이를 선행사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일반 대응어와 동일하므로 PRO는 대명사적 대응어(pronominal anaphor)라고 보아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 주장에 따르면 PRO는 [+anaphoric]과 [+pronominal]의 자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속조건(A)와 결속조건(B)도 충족시켜야한다는 논리를 세울 수 있다. 이는 PRO가 동일한 지배범주 안에서 결속되어야 하며 동시에 자유로워야만 문장이 적형이된다는 뜻이다. 다시말해 PRO의 해석이 동일 문장내의 다른 명사구에 의해 결정될 때, 이는 결속조건(A)를 충족시키는 반면, PRO가 그 문장 내에서 자유로울 때에는 결속조건(B)에 해당된다. 따라서 PRO의 성격은 한 문장 내에서 결속도되고 또 자유로울 수도 있는 이율배반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이것은 PRO에는 지배범주도 없고 지배자도 없다는 뜻으로 해석됨을 의미한다.

Chomsky는 PRO에 지배범주가 없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결속조건(A)와 결속조건(B)를 충족시키게 되어 문법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PRO가 지배되어서는 안된다는 PRO-정리(PRO-Theorem)는 별도의 조건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결속조건으로부터 도출해 낼 수 있는 정리가 된다. 그러나 'John tried [cp PRO to understand the problem]'의 경우에는 문제가 달라진다. 이 문장의 PRO는 지배자가 없으므로 지배범주가 없다. 따라서 이 문장은 자동적으로 결속조건(A) 및 (B)를 충족시키게 된다. 이 경우에는 PRO의 지표가 무엇이든 전혀 상관이 없게된다. 그런데 실제에 있어서는 위문장에서 PRO가 John과 동일한 사람을 지칭

하는 경우에만 문법적일 수 있다. 그러나 PRO의 선행사가 결속이론에 의하여 결정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PRO의 선행사를 결정하기 위해서 별도의 이론이 필요하게 된다. 결속이론 그 자체는 PRO가 지배되지 않는 위치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 즉 PRO는 일반적으로 부정사의 주어로만 나타난다는 것 외에는 PRO의 통사론과 의미론에 대해서 거의 아무것도 말해주는 것이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것은 PRO가 어떤 때는 통제적이고, 또 어떤 때는 일반적인 사람의 의미를 지니는 회피적이 되는지를 어떻게 알게되느냐 하는 결정적인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게 된다. 이것은 아마 결속이론과는 독립적인 통제이론이 더 충분히 발달해야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인 것이다.

결속 조건에 따르면 PRO도 다음 18)에서와 같이 대응어의 선행사가 될 수 있다.

19. a) John wants to better himself. (surface structure)

b) John<sub>i</sub> wants [<sub>CP</sub> PRO<sub>i</sub> to better himself<sub>i</sub>].

(D-structure)

위 19a)의 D-구조는 19b)이다. 19)에서 himself는 동사 better에 의하여 지배되며, better를 포함하는 최소 IP(S)나 NP는 괄호로 표시된 종속절 CP이다. himself는 대응사이므로 결속조건(A)에 의하여 괄호로 표시된 CP속에서 동지표되고 그것을 성분-통어하는 선행사를 요구한다. 분명히, John은 그러한 자격을 갖지 않는다. 왜냐하면 John은 괄호로 표시된 CP밖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PRO는 그러한 자격을 갖는다. 왜냐하면, PRO는 himself를 성분-통어하고, 또 괄호로 표시된 CP속에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PRO가 19a)에서 himself의 선행사가 된다고 가정할 때에만 18b)와 같은 문장이 적격임을 예측할 수 있게 된다.

이제까지 내용을 종합하면, 부정사절의 공주어(empty subject) 위치에 나타나는 PRO는 상위절의 주어 NP나 보충어 NP를 선행

사로 갖거나, 임의의 지시대상(arbitrary reference)을 선행사로 취하기도 한다. 따라서 PRO가 상위절의 어떤 요소에 의해 통제되느냐 하는 것은 PRO와 동일한 성, 수, 인칭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 선행사를 결정하는 과정인 셈이다. 이처럼 통제에는 PRO가 문장 내에서 의무적으로 어떤 요소에 의해 통제받는 의무적 통제(obligatory control)와 PRO가 문장내에서 어떤 요소에도 통제받지 않는 임의적 통제(arbitrary control)가 있다. 대부분 상위문의 동사가 try, want, promise, be eager, decide, ask, refuse, remember, forget, swear, admit, demand 등일 경우 내포문의 내현적 주어인 PRO는 상위문의 주어에 통제되고, 상위문의 동사가 tell, persuade, convince, order, permit, instruct, allow 등일 경우 내포문의 외현적 주어인 PRO는 상위문의 목적에 통제되고 있다. 한편 임의적 통제는 important, certain, unclear, unknown, difficult, easy와 같은 형용사가 동사구를 이룰 때, 하위절의 PRO에 나타나며 혹은 ask, tell 등과 같은 동사가 취하는 의문 보충어 절내의 PRO에서도 나타난다.

20. a) John<sub>i</sub> promised Mary [CP PRO<sub>i</sub> to marry her].  
 b) John<sub>i</sub> want [CP PRO<sub>i</sub> to study linguistics].  
 c) John<sub>i</sub> tried [CP PRO<sub>i</sub> to behave himself].  
 d) John<sub>i</sub> is eager [CP PRO<sub>i</sub> to go to college].
21. a) John persuaded Mary<sub>i</sub> [CP PRO<sub>i</sub> to marry him].  
 b) John told Mary<sub>i</sub> [CP PRO<sub>i</sub> to study hard].  
 c) John ordered Mary<sub>i</sub> [CP PRO<sub>i</sub> to put them away].  
 d) John advised Mary<sub>i</sub> [CP PRO<sub>i</sub> to be polite to the elders].
22. a) John is too stubborn [CP PRO to talk].  
 b) John was asked [CP what PRO to do].  
 c) It is unclear [CP who PRO to choose].  
 d) It is common [CP PRO to sleep late on Sunday].

위 20)에 나타난 PRO는 모두 상위문의 주어인 John에 의하여 통제받고 있다. 따라서 John은 PRO의 통제자(controller)가 된다. 21)에 나타난 PRO는 상위문 동사의 목적어들에 의하여 통제받고 있다. 따라서 이 목적어들이 21)의 PRO에 대한 통제자가 된다. 반면에, 22)의 예문에서는 통제자가 문장에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처럼 내포문의 내현적 주어 PRO가 상위문의 주어통제를 받느냐, 목적어통제를 받느냐, 혹은 임의적 통제가 되느냐 하는 것은 대체로 상위문의 동사 속성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동사의 고유 의미자질에 의해서 판별되는 것이 아니라 문장의 구조나 화용론적인 면의 고려가 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 23. a) John promised Bill<sub>i</sub> [<sub>CP</sub> PRO<sub>i</sub> to be allowed to shave himnself].
- b) John<sub>i</sub> was promised t<sub>i</sub> [<sub>CP</sub> PRO<sub>i</sub> to be allowed to leave].
- c) John<sub>i</sub> begged the teacher [<sub>CP</sub> PRO<sub>i</sub> to be allowed to leave early].

Promise는 원래 주어통제 동사인데 수동화된 구조를 가진 23a)와 23b)에서는 PRO가 promise의 목적어에 통제되고 있으며, 23c)의 beg도 목적어통제 동사이지만 내포문이 수동화되어 주어가 PRO를 통제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통제자가 내포된 상위문이나 PRO가 내포된 하위문이 수동문으로 변형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 24. a) It was decided by committee [<sub>CP</sub> PRO to start early].
- b) John<sub>i</sub> had whispered to Mary<sub>j</sub> [<sub>CP</sub> PRO<sub>i+j/3/3+arb</sub> to go to the movies].
- c) John is persuaded t<sub>i</sub> [<sub>CP</sub> PRO<sub>i</sub> to take the examination].
- d) It is said for us<sub>i</sub> [PRO<sub>i</sub> to try [PRO<sub>i</sub> to win].

24a)의 PRO의 통제자는 문장에 나와있는 NP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문장내에 없는 제3의 NP가 통제자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PRO의 통제는 문맥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특히, 24b)에서 PRO는 John과 Mary를 모두 나타낼 수도 있고 Mary만을 나타낼 수도 있으며 Mary와 다른 누구를 함께 나타낼 수도 있다. 이 중 어느 것인지는 이 문장이 쓰인 문맥에서 결정된다. 24c)에서 John과 *t*의 동지표는 NP-이동에 의해 S-구조에 명시되지만 PRO는 LF층위에서 *ti*로부터 동지표를 받게 된다. 또 24d)에서 두번째 PRO는 첫번째 PRO로부터 지표를 받고 있다. *us*로부터 지표를 부여 받은 첫번째 PRO가 두번째 PRO의 통제자가 되고 있다.

위에서 살핀것 처럼 PRO의 통제요인들을 다루는 통제이론은 LF계층에서 적용되므로 LF계층에서 PRO는 자신을 통제하는 요소와 같은 지표를 부여받게 된다. 따라서 의무적 통제에서는 통제자가 PRO보다 선행해야 하고 PRO를 성분통어해야 하나, 임의적 통제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 또한 의무적 통제의 PRO는 다른 어휘적 NP로 대체될 수 없으나, 임의적 통제의 PRO는 대체될 수 있다.

25. a) John's sister promised Mary [<sub>CP</sub> PRO to behave herself/\*himself].  
 b) John ordered Bill's sister [<sub>CP</sub> PRO to behave herself/\*himself].  
 c) [<sub>CP</sub> PRO to feed him] is important to everyone.  
 d) [<sub>CP</sub> PRO to get up early] would be good for our health.

25a)와 25b)에서 'John's sister' 또는 'Bill's sister'전체는 PRO의 통제자가 될 수 있지만 John 또는 Bill만은 통제자가 될 수 없다. 그 이유는 전자는 PRO를 성분통어 하지만 후자는 성분통어 못하기 때문이다. 25c)와 25d)는 임의적 통제이기 때문에 통제자가 PRO를 선행하면서 성분통어하고 있지 않은 경우이다.



위에서 처럼 통제 서술어가 주어 통제를 하느냐 비주어 통제를 하느냐 하는 문제는 관련 서술어의 의미로부터 직접 도출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에 있어 서술어를 분류하여 엄격히 어떤 하나의 통제부류에 귀속시키려는 것은 잘못된 시도란 것을 다음 예문에서 알 수 있다.

26. a) John pleaded with Bill PRO to leave.  
 b) John pleaded with Bill PRO to be allowed to leave
27. a) John appealed to Bill PRO to leave.  
 b) John appealed to Bill PRO to be allowed to leave.

26a)와 27a)에서, PRO는 비주어 통제를 받아 Bill을 지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26b)와 27b)에서, PRO는 주어통제를 받아 John을 지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문제를 더 복잡하게 하는 것은 다음 28)와 같은 문장에서 방언적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Radford, 1981: 382).

28. a) John asked Bill PRO to leave.  
 b) John asked Bill<sub>i</sub> if he<sub>i</sub> would leave.  
 c) John<sub>i</sub> asked Bill if he<sub>i</sub> could leave.

즉, 영국 화자에게 있어 28a)의 PRO는 비주어 통제되어 Bill을 가리키게 되나, 대부분의 미국 화자에게는 PRO가 주어 통제를 받아 John을 가리키게 된다. 이러한 해석의 차이는 28b)와 28c)처럼 나타난다.

#### 4. PRO와 의미역

PRO가 출현하는 부정사의 주어자리는 의미역을 받는 위치이다. 뿐만아니라 PRO와 성, 수, 그리고 인칭의 통사정보를 공유하는 통제자가 문장속에서 PRO를 성분통어(c-command)할 때 그선행사의 위치도 의미역을 받는 논항 위치( $\theta$ -position)이다. 의미역은

어휘적인 동사, 형용사, 전치사 등의 의미 특성에 따라 보충어 NP나 부사상당어구(adverbials) 또는 보충어 절에 부가하는 의미역과 VP의 의미 특성에 따라 주어에 부가하는 것으로 구별된다. 이처럼 문장안에서 의미역을 받는 문법 범주를 논항(argument)이라 할 때, D-구조(D-structure)에서 의미역을 받는 최대투사범주의 유형은 i) 대응어 (재귀 대응어, 상호 대응어, NP-흔적), ii) 대명사류 (대명사, PRO), iii) 지시적 표현 (어휘적 NP, wh-흔적), 그리고 iv) 절 이다(Chomsky, 1981: 101).

모든 문장은 의미역 기준( $\theta$ -criterion: Chomsky, 1981: 36)에 따라 D-구조에서 각 논항은 의미역위치를 차지해야 하며 각 의미역 위치는 논항으로 채워져야 한다. 여기에서 논항이라 함은 대체로 지시적 NP와 S'(혹은 보충어 구실을 하는 S)를 지칭하는 말로 it나 there처럼 지시적 기능이 없는 허사적 요소(dummy element)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PRO는 음성적으로는 발음되지 않는 영범주(phonetically null element)이지만 의미역을 받는다는 점에서 논항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의미역이 할당되는 위치를 의미역 위치하고 문법기능이 할당되는 위치를 논항위치라 한다. 핵계층이론으로 표현하면 모든 보충어 자리는 의미역 위치가 된다. 따라서 보충어와 주어자리에는 문법기능이 할당되기 때문에 항상 논항위치이다. 의미역 위치에는 D-구조에서 항상 논항이 나타나야 하지만 논항위치에는 논항이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다. 다시말해, 주어위치는 항상 [NP, S]라는 문법기능이 할당되는 논항위치이지만 의미역을 가진 논항이 나타날 때는 의미역 위치가 되고, 허사인 it나 there와 같은 비논항이 나타날 때는 비의미역 위치가 된다. 그러나 보충어 위치는 항상[NP, VP]라는 문법기능이 할당되는 논항위치이며 동시에 의미역위치이기도 하다. 즉, VP의 핵인 V의 보충어의 경우에는 논항위치와 의미역위치가 일치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각 논항은 오직 하나의 의미역만을 지니고 각 의미역은 오직 하나의 논항에만 할당된다'는 의미역 기준( $\theta$

-criterion: Chomsky, 1981: 36)과 '하나의 논항연쇄에서, 그 첫 구성원만 격-표시되어야 하고, 그 마지막 구성원은 의미역-표시되어야 한다'는 논항연쇄조건(argument-chain condition: Chomsky, 1981: 334)에 의하면 believe-류 동사나 persuade-류 동사가 취하는 보충어 형태가 S(IP)냐 S'(CP)하는 것이 분명해진다.

29. a) They believe [<sub>IP</sub> John to be intelligent].  
 b) John persuaded Bill [<sub>CP</sub> [<sub>IP</sub> PRO to leave]].

29a)에서 John은 단일 구성원 연쇄로서 'be intelligent'에게서 의미역을 받고 believe에서 격을 받는다. 한편 believe의 내재적 의미역은 하위절 IP전체에게 주어진다. 이처럼 격이 IP와 같은 최대투사범주를 넘어서 주어질 때, 이것을 예외적 격표시(exceptional case-marking)라고 한다. 29b)에서 Bill은 단일 구성원 연쇄로서 persuade에게서 의미역과 격을 받고, 하위절 CP에는 PRO가 설정되어 leave의 외재적 의미역을 받는다. 지배-결속 이론(government-binding theory(GB): Chomsky, 1981)에서 PRO는 예외적으로 격을 받지 않으면서 의미역을 받는 요소로 간주되어왔다. 즉, PRO는 논항연쇄를 형성하지 않으면서 의미역을 받는 셈이다.

30. a) Mary tried [<sub>CP</sub> [<sub>IP</sub> PRO to win the race]].  
 b) \*John believes [<sub>IP</sub> PRO to be intelligent].

30a)에서 주절의 VP와 'to-부정사 절'의 VP는 의미역 할당자이다. 따라서 주절의 VP가 할당하는 의미역은 Mary가 받으나 'to-부정사 절'의 VP가 부여하는 의미역을 받을 요소가 외형상 없다. 만일 'to-부정사 절'의 VP가 부여하는 의미역을 다시 Mary가 받는다면 Mary는 두개의 의미역을 받게되어 각 논항(argument)은 반드시 단 하나의 의미격( $\theta$ -role)을 할당받아야 하며 각 의미역은 반드시 단하나의 논항에 할당되어야 한다'는 의미역기준(theta-criterion: Chomsky, 1981: 36)을 어기게 된다. 따라서 30a)

가 적형문이 되기 위해서는 'to-부정사 절'의 VP는 Mary가 아닌 다른 논항, 즉 PRO에게 의미역을 할당해야 한다. 그런데 PRO는 격을 지니지 않는데도 의미역이 할당되므로 '어떤 요소가 의미역 표시( $\theta$ -marking)를 받기 위해서는 격(case)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가시성 조건(visibility condition: Chomsky, 1986a, 94)을 어기고 있어 문제점으로 남는다. 즉, 가시성조건은 격을 할당받는 요소만이 의미역 표시에 가시적(visible)이게 되는데 PRO는 격배정은 못받으면서 의미역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가시성 조건에 정면으로 모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반면에 30b)는 대괄호로 묶인 부분이 IP신분이어서 PRO가 격배정되어 비문법적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직면하여 Chomsky는 '의미역 표시를 위해서는 먼저 격이 할당되어 있어야 한다:'는 가시조건에 PRO를 예외로 인정하는 조항을 삽입하고 있다. 이를 개략적으로 기술하면 '의미역 표시를 위하여는 격이 할당되거나 혹은 PRO이어야 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물론 당면한 문제를 일시적으로 제거하기는 하겠지만 궁극적인 문제해결의 타당성은 없다.

그러나 문제는 PRO가 S-구조에서 격을 받느냐 하는 것이다. 가시조건에 따라 경우 30)에서 PRO가 의미역을 할당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격을 바दा야 한다. 그러나 부정사절의 주어자리는 격이 부여되지 않는 위치인 것이다. 따라서 30)에서 PRO는 격을 할당받지 못한다. 이것은 PRO가 결속이론상의 이유로해서 지배되지 않는 위치에만 나타나기 때문이다. PRO가 지배되지 않는 위치에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PRO는 격이 할당되는 위치에는 전혀 나타날 수 없다는 추론을 가능케 한다.

의미역 및 격과 관련하여 가시조건으로 설명되지 않는 문장도 있는지 조사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 가시조건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방법으로 격이 없지만 의미역이 있는 경우와 격은 있지만 의미역이 없는 경우를 생각해 본다.

- b) John<sub>i</sub> seems [<sub>IP</sub> t<sub>i</sub> to be intelligent].
- c) John's attempt [<sub>CP</sub> PRO to finish on time].
- d) It was raining.
- e) \*It is likely [it to rain].

32. a) John is [a fine mathematician].
- b) [John], I consider [a fine mathematician].
- c) John did it [himself].

31a)에서 대괄호 안의 CP는 논항이다. 이 논항은 동사 seem이 부여하는 의미역을 반드시 받아야만 한다. 또한 가시조건에 따를 경우, 의미역을 받기 위하여는 반드시 격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seem은 격을 할당하지 못하는 동사이다. 따라서 31a)는 가시조건을 위반하는 것 처럼 보인다. 한확성(1995: 110)은 주절의 주어 위치에 있는 허사의 it가 격을 받아 CP로 이전되는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31b)에서 대괄호 안의 IP는 seem으로부터 의미역을 부여받지만 seem은 격할당 능력이 없는 동사이다. 따라서 IP는 격을 받지 못하지만 D-구조에서 IP내의 John은 'be intelligent'에게서 의미역을 받으나 격이 없기 때문에 격을 받기 위해 NP-이동되어 주격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1c)에서 대괄호 안의 'finish on time'이 PRO에 의미역을 주지만 NP인 attempt는 격을 줄 수 없다. 31d)에서 it는 허사로서 의미역 할당을 받지 못하는 비논항이다. 그런데 이는 격위치에 나타나 있다. 또 31e)에서 대괄호 안의 it는 격을 할당받지 못하는 위치에 나타나 있다. 만일 격이 의미역 할당의 필요조건이라면 31e)가 왜 비문법적인지 설명할 수 없게 된다. 위 32)는 Chomsky(1986a: 95)가 제안하고 있는 의미역을 할당받지 않는 NP를 포함하는 NP들이다. Chomsky의 주장에 따를 경우 be동사(copula)의 보어, 주제(topic) 위치의 NP, 강조의 대명사(emphatic pronoun)등은 의미역을 할당받지 않는 요소들이므로 이들은 격을 반드시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Chomsky(1986a: 193)는 과거의 입장을 수정하여 V, P와 함께 N 및 A도 격할당자(case-assigner)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는 또한 N과 A가 부여하는 격을 주격이나 대격과 같은 구조격(structural case)과 구별하여 내재격(inherent case)이라고 하고 있다. 내재격은 S-구조에서 'John is proud [CP that he succeeded] - John is proud of his success'에서 처럼 NP앞의 of의 형태로 실현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시조건은 충분한 설명력을 지니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Chomsky(1986a: 161)는 핵계층 규약을 비어휘 범주인 S와 S'에 까지 확대하여 S와 S'를 각각 IP와 CP로 분석하고, Aoun & Sporticher(1983: 224)의 m-통어 개념을 수용하면서 지배 정의에 장벽(barrier) 개념을 도입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된 지배 정의를 제시하였다 (Chomsky, 1986b: 9):

- 33)  $\alpha$  governs  $\beta$  iff  $\alpha$  m-commands  $\beta$  and there is no  $\gamma$ ,  $\gamma$  a barrier for  $\beta$ , such that  $\gamma$  excludes  $\alpha$ .

이것은 ' $\alpha$ 가  $\beta$ 를 지배하려면  $\alpha$ 가  $\beta$ 를 최대통어 해야하고,  $\beta$ 에 대한 장벽인  $\gamma$ 가  $\alpha$ 를 배척하는 그런 장벽이 없어야 한다' 뜻이다. 여기에서 최대통어(m-command)란 ' $\alpha$ 가  $\beta$ 를 M-통어하려면,  $\alpha$ 가  $\beta$ 를 또는  $\beta$ 가  $\alpha$ 를 관할하지 않아야 하고,  $\alpha$ 를 관할하는 첫 최대투사 범주(maximal projection category)가  $\beta$ 를 관할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Chomsky(1986b: 14)에 의하면 장벽에는 'IP를 제외한 모든 최대 투사 범주는 L-표시되지 않으면 장벽이 되는 고유장벽과  $\gamma$ 가  $\delta$ 로부터 장벽성을 이어받아 장벽이 되는 계승장벽(inherited barrier)이 있다고 하고 있다. 여기에서  $\alpha$ 가  $\beta$ 를 의미역 지배( $\theta$ -government)하는 어휘 범주일 때  $\alpha$ 는  $\beta$ 를 L-표시한다고 한다. 32)의 지배관계를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하여 L-표시(L-marking), 차단범주(blocking category) 및 투명성(transparent)이란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34. a) I thought [<sub>AP</sub> him unhappy].  
 b) John arrived [<sub>AP</sub> PRO totally exhausted].

위 소절 예문에서 34a)의 AP는 think가 소절 주어인 him에게 격을 담당할 수 있으므로 투명(transparent)하다고 (즉 장벽이 아니라고) 할 수 있으나 34b)에서는 PRO가 지배되지 못하므로 AP는 불투명(opaque)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동일한 AP투사를 갖는 두 구문의 차이는 34a)의 소절은 상위문 동사 think의 보충어이고, 34b)의 소절은 상위문 동사 arrive의 논항이 아닌 단순히 수식의 기능을 하는 부가어(adjunct)라는 것이다. 따라서 think는 보충어에 의미역 지배를 해서 의미역을 담당하지만, arrive는 그렇지 못하고 있다. 이 처럼 어휘범주가 보충어를 지배하고 의미역 표시(theta-marking)하는 관계가 장벽성을 무효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L-표시되는 최대투사는 그 최대투사 안에 포함된 요소에 대해 투명하나 L-표시되지 않는 최대투사는 그 최대투사안의 요소에 대해 불투명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때 L-표시되지 않는 최대투사를 차단범주(blocking category: Chomsky, 1986b: 14)라고 한다. 그러나 차단범주와 장벽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때 필요한 개념이 인계(inheritance)에 의한 장벽 개념이다.

35. John decided [<sub>CP</sub> e [<sub>IP</sub> PRO to [<sub>VP</sub> see the movie]]].

35)에서 L-표시 되는 요소는 decided의 보충어인 CP와 내포절의 동사 see의 보충어인 NP뿐이다. 이 둘을 제외한 주어 위치의 NP 및 VP, IP 등은 모두 L-표시되지 못하므로 이들은 일단 장벽의 가능성이 있는 차단 범주가 된다. 그런데 decide가 CP를 L-표시하므로 CP는 차단범주가 아니어서 장벽이 될 수 없기 때문에, decide가 내포절 CP의 COMP 위치에 있는 공범주 'e'를 지배한다. 그러나 문제는 PRO가 decide에 의해 지배되느냐 하는 것이다.

PRO-정리(PRO-theorem)에 의하면 PRO는 지배되어서는 안 되므로 35)예문의 문법적임을 설명하기 위해서 PRO가 decide에 의해 지배되어서는 안된다. 이르기 위해서는 decide와 PRO 사이에 재배관계를 차단하는 장벽이 하나 이상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35)에서 CP는 decide에 의해 L-표시되므로 차단범주가 아니고 IP도 그 자체로는 고유장벽이 아니다. 그러나 IP는 그 자체로는 decide와 PRO 사이의 지배관계를 차단하지는 못하지만 계승장벽 이론(Chomsky, 1986b: 14)에 따라 CP에게 자신의 장벽성을 계승시킬 수는 있다. 따라서 IP로부터 장벽성을 계승받은 CP가 장벽이 되므로 decide는 PRO를 지배할 수 없게 한다.

이처럼 장벽이론에서의 장벽성 여부는 절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대적인 관계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동일한 요소가 어느 경우에는 장벽으로 기능하기도 하고 어느 경우에는 장벽이 아닌 것으로 기능하기도 하는 것이다.

다음은 promise-류의 주어통제 동사는 동일성 통제(identity control)조건에 따르고, 한편 persuade-류의 보충어통제 동사는 의미역구별 조건(thematic distinctness condition)을 따른다는 사실로 문장의 적격성 여부를 가려 보고자 한다. Ruzicka(1983)의 주장을 인용하고 있는 김용석(1993: 20-21)은 promise-류 동사의 경우에, 통제자(controller)와 피통제자(controllee)가 모두 동일하게 주어 위치에 나타나고, 통제자와 피통제자가 모두 동일한 의미역을 가지고 있어야 동일성 조건(identity condition)이 만족된다고 보고 있다. 반면에, persuade-류 동사는 통제자와 피통제자가 서로 다른 종류의 의미역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역구별 조건을 만족시켜야한다고 하고 있다. 김용석이 인용하고 있는 Ruzicka에 의하면 D-구조의 주어 NP는 물론이고 S-구조의 주어 NP도 통제자나 피통제자가 될 수 있는 주어 위치의 주어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6. a) \*John<sub>i</sub> was promised *t* [PRO<sub>i</sub> to leave].



- b) John was promised  $t_i$  [PRO<sub>i</sub> to be allowed  $e_i$  to leave].

36)에 사용된 promise는 주어 통제의 자질(+SC)을 가지고 있는 동사이다. 36a)와 36b)의 D-구조에서 promised의 주어 자리는 비어있지만 S-구조에서 주어 자리는 채워져 있으므로 동일성조건인 첫째 조건은 만족시키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통제자와 피통제자가 모두 동일한 의미역을 가져야 한다는 동일성 조건인 둘째 조건을 어기고 있다. 즉, 주절의 주어인 John은 수혜자(benefactive) 혹은 목표(goal)의 의미역을 부여받고 PRO는 행위자의 의미역을 부여받고 있어서 의미역 동일 조건을 어겨 비문법적이다. 그러나 36b)의 경우는 통제자 John과 피통제자인 PRO가 모두 주절과 중속절의 동사로부터 목표(goal)란 동일한 의미역을 부여받음으로서 결과적으로 의미역 동일조건을 만족시키고 있기 때문에 적형문이다.

37. a) John<sub>i</sub> was persuaded  $t$  [PRO<sub>i</sub> to leave].  
 b) \*John<sub>i</sub> was persuaded  $t_i$  [PRO<sub>i</sub> to be allowed  $e_i$  to leave]

37a)의 경우 주절의 동사가 persuade로서 보충어 통제의 자질(+CC)을 가지므로 통제자인 주절의 주어 John과 피통제자인 PRO가 서로 다른 의미역을 가져야 하는 의미역구별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John은 목표의 의미역을, PRO는 행위자의 의미역을 부여받고 있어서 그 조건을 만족시켜 적형문이 된다. 그러나 37b)에서는 persuade가 보충어 통제의 자질(+CC)을 갖고 있으면서도 통제자인 John과 피통제자인 PRO가 각기 주절동사 persuade와 중속절 동사 allow로부터 동일한 목표(goal)란 의미역을 부여받고 있어 의미역구별 조건을 어기고 있어 부적격 문이 되고 있다.

## V. 결 론

성, 수, 그리고 인칭의 자질을 가지고 있지만, 격을 할당받지 못하여 음성적으로 실현되지 않는 PRO는 한 명제(proposition)의 술어 동사가 하위범주화하는 논항에 의미역을 부여해야한다는 의미역 이론과 모든 문장에는 주어와 있어야 한다는 확대투사원리에 따라, D-구조에 나타나는 추상적 통사요소이다. 이 추상적 대명사 요소인 PRO의 통사상 분포는 동명사 구문, 전치사의 보충어 구문 그리고 소절 등에 나타나기도 하지만 주로 부정사절의 주어로서 나타난다. 이처럼 부정사절의 공주어(empty subject)위치에 나타나는 PRO의 지시관계를 결정하는 원리를 통제이론이라 한다. 이 통제이론에서 PRO의 통제자를 문장내에서 찾아야 하는 경우가 의무적 통제이고, 분장외에서 그 지시대상을 찾는 경우가 임의적 통제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PRO는 논항이므로 그가 지사적으로 의존할 선행사의 유무와 상관없이 의미역을 부여받는 위치에는 어디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잠정적인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PRO의 선행사인 통제자의 결정은 동사의 자질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문장의 구조나 화용적(pragmatic) 요인이 크게 기여한다. 따라서 서술어를 분류하여 엄격히 어느 하나의 통제부류에 귀속시키려는 시도는 잘못된 것으로 여겨졌다. 가령 동사 promise는 주어 통제 자질을 갖고 있지만 'Bill<sub>i</sub> was promised [PRO<sub>i</sub> to be allowed to leave]'에서는 목적어 통제자가 되고 'Bill<sub>i</sub> was promised [PRO<sub>i/j</sub> to get permission to leave early]'에서는 문장내에 통제자가 없어 임의적 통제자가 되고 있다. 한편 부가절(adjunct clause)에 있는 PRO는 경우에 따라 'John<sub>i</sub> hired Mary<sub>j</sub> [PRO<sub>i/j</sub> to fire Bill]'처럼 주어통제 또는 목적어 통제도 받을 수 있다. 또 '[PRO<sub>i</sub> to behave myself<sub>i</sub>] would be my pleasure'에서 PRO의 지배자가 역행 대명사나, 역행 재귀대명사처럼 그 뒤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다.

PRO의 의무적 통제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었다.

- a) PRO의 자리에는 어휘적 NP가 나타날 수 없다.
- b) 선행사는 통제되는 PRO를 선행한다.
- c) 선행사는 의미역적으로만 결정된다.
- d) PRO는 선행사가 있어야 한다.
- e) 선행사는 PRO를 성분통어해야 한다.

반면에 PRO의 임의적 통제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었다.

- a) PRO는 반드시 선행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 b) 선행사가 있는 경우도 성분통어 조건을 준수할 필요 없다.
- c) 선행사가 복합 술어 뒤에 나올 수도 있다.
- d) 선행사가 확일적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 e) 어휘적 NP가 PRO의 자리에 나타날 수 있다.

PRO는 대용어로 될 수 있고 대명사도 될 수 있는 [+anaphor, +pronominal]의 특성을 갖고 있다. 그 특성은 그것이 나타나는 환경에서 도출된다. 만일 PRO가 국부적으로 결속된다면 그것은 대용어이며, 국부적으로 결속되지 않고 자유롭다면 그것은 대명사류이다. 결국 PRO가 나타날 수 있는 위치는 지배되지 않는 위치이기 때문에, PRO가 나타날 수 있는 곳이면 언제나 격을 부여받아야 하는 어휘적 NP가 나타날 수 없다는 사실을 예측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여기에도 문제점은 있었다. 'I want John/PRO to win'은 다같이 문법적인 문장으로 취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해결방법은 want의 경우는 S'-삭제 규칙이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유형에 속하는 동사로 규정하는 것이 었다.

PRO의 특정 통제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문장의 구조배열, 동사의 성질, 그 밖의 회용론적 요인들이 크게 기여하고 있었다. 또 PRO의 통제자는 어휘적 NP뿐만 아니라, 흔적 또는 의미지표

를 부여받은 다른 PRO가 되기도 했다. 가령 'John<sub>i</sub> is persuaded t<sub>i</sub> [PRO to take the examination]'에서 John과 t의 동지표는 NP-이동 규칙에 의해 S-구조에서 명시되지만 PRO는 LF층위에서 t<sub>i</sub>로부터 동지표를 받게된다. 또한 'It is sad for us<sub>i</sub> [PRO<sub>i</sub> to try [PRO<sub>i</sub> to win]]'에서 두 번째 PRO는 첫 번째 PRO로부터 지표를 받고 있다. 따라서 이미 지표를 부여받은 첫 번째 PRO가 두 번째 PRO의 통제자가 된다. 또 PRO의 해석이 동일 문장내의 다른 NP에 의해서 결정될 때, 이는 결속조건(A)를 충족시키는 반면, PRO가 그 문장 내에서 자유로울 때에는 결속조건(B)에 해당된다. 따라서 PRO의 성격은 한 문장 내에서 결속도되고 자유로울 수도 있는 이율배반적인 성격들 띠고 있다.

PRO가 부정사 구문의 주어로 나타날 때는 CP가 그 부정사 구문의 상위 최대투사로서 역시 장벽의 역할을 하게 됨을 보았다. 'John decide [CP [IP PRO to see the movie]]'에서 PRO는 지배되지 않아야 한다. 지배되지 않으려면 CP나 IP 중 어느 하나가 외부로부터의 지배를 차단하는 장벽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두 개의 최대투사가 합쳐서 계승정벽을 형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것은 IP 그 자체는 결코 정벽이 아니지만, CP에 의해 관찰되면 장벽성을 CP에 계승해 준다는 뜻이다. 위 문장에서 decide는 CP를 L-mark한다. 따라서 CP는 차단범주가 아니다. 그런데 IP는 L-mark되지 못해 차단범주가 된다. 그러나 IP자체만으로는 차단범주가 아니므로 decide와 PRO 사이에는 차단범주가 없다. 그러나 CP와 IP가 결합하여 장벽성을 유도해 낸다. 이처럼 Chomsky(1986b: 14)가 장벽의 개념을 이용해서 자체로서는 장벽성이 없는 CP가 고유장벽이 아닌 IP로부터 장벽성을 이어받아 PRO를 지배당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장벽성여부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가시조건에 의하면 의미역 표시를 위해서는 격이 할당되어 있어야 한다. PRO가 의미역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격을 받아야 하는데 Chomsky는 가시조건에 PRO를 예외로 인정하는 '의미역 표

시를 위해서는 격이 할당되거나 혹은 PRO이어야 한다'고 하는 조항을 삽입하고 있다. 이렇게 상호상충되는 요소들을 이접적으로 결합하여 하나의 조건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영어에는 격은 없으면서 의미역은 할당받고 있고, 반면에 격은 있으면서도 의미역을 할당받지 못하는 통사상 구문들이 많은데 PRO에만 예외적 조항을 둔다는 것은 바람직한 문법이론에서는 가급적 회피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Ruzicka(1983)가 동일성 조건(identity condition)과 의미역 구별 조건(thematic distinctness condition)을 제시해서 주어통제 동사류와 비주어통제 동사류가 취하는 논항구조가 일관성이 없이 배열되는 것을 막으려는 시도는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 참고문헌

- Aoun, J., and D. Sportiche. 1983. "On the Formal Theory of Government." *The Linguistic Review* 2. 3.
- Chomsky, Noam. 1980. "On Binding." *Linguistic Inquiry* 11: 1-46.
- Chomsky, Noam. 1981. *Lectures on Government and Binding*. Dordrecht: Foris.
- " 1982. *Some Concepts and Consequences of the Theory of Government and Binding*. Cambridge, MIT Press.
- " 1986a. *Knowledge of Language: Its Nature, Origins and Use*. New York: Praeger.
- " 1986b. *Barriers*. Cambridge, MIT Press.
- " 1988. *Language and Problems of Knowledge*. Cambridge, Mass. : MIT Press.
- Emonds, J. E. 1987. "The Invisible Category Principle." *LI* 18: 613-32.

- Haegeman, L. 1991. *Introduction to Government & Binding Theory*. Basil Blackwell, Cambridge, Mass.
- Huang, C. - T. J. 1984. "On the Distribution and Reference of Empty Pronouns." *LI* 15. 4.
- Lasnik, H., and J. Uriagereka. 1988. *A Course in GB Syntax*. MIT Press.
- Radford, A. 1981. *Transformational Syntax: A Student's Guide to Chomsky's Extended Standard Theory*.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 " 1988. *Transformational Grammar*.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 Ruzicka, R. 1983. "Remarks on Control," *Linguistic Inquiry* 14. 309-324.
- 김양순 · 박연미. 1994. 「영어 통사론 강의」. 형설출판사.
- 김용석. 1993. 「통제이론」. 한신문화사.
- 나병모. 1992. 「장벽이론과 논리형태」. 한신문화사.
- 박상수. 1994. 「영어통사론」. 형설출판사.
- 윤만근. 1996. 「생성통사론」. 한국문화사.
- 한학성. 1995. 「생성문법론」. 태학사.